The Korean Criminologist

February 2021

The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11 No. 1

학회장: Kyung-Seok Choo
(추경석)
School of Business and Criminal Studies
Utica College, NY 13502
kychoo@utica.edu

부학회장: Hyeyoung Lim
(임혜영)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AL 35294
hyeyoung@uab.edu

총무: Sinchul Back
(백신철)
Dept. of Sociology,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University of Scranton
Scranton, PA 18510
sinchul.back@scranton.edu

회계: Hannarae Lee
(이한나래)
Dept. of Criminal Justic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 MA 02325
h2lee@bridgew.edu

뉴스레터 편집장: Heeuk D. Lee
(이희욱)
Dept. of Criminal Justice
Weber State University, UT 84408
heeuklee@weber.edu

Inside this issue:

학회장 인사말	1
학술분과 보고	4
Virtual Conference	12
Comp Exam Tips	20
Online Teaching	24
특별기획	27
학교소개	31
회원인사 및 연구 활동	34
공지사항	38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ditor's Summary / 학회장 인사말

Editor's Summary

- KOSCA Organizational Chart
- 위원회/학술분과 보고
- 학생분과 정기모임보고
- KOSCA Virtual Conference
- Doctoral Comprehensive Exam Tips
- KOSCA COVID-19 Online Teaching
- 특별기획 [1]: Interview with Dr. Sally Simpson
- 특별기획 [2]: 학교소개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 회원인사 및 연구활동
- 공지사항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께,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혼란 속의 2020년을 뒤로 하며, 10년 뒤 혹은 그 이후 우리역사는 2020년을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공포와 위기로 멈춰세웠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범죄학회도 설립된 후에 처음으로 연례총회가 취소되었고 현재로선 올 2021년 학회도 세계각국에서 수천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이전의 학회는 불가능하기에 제한적인 학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위기를 맞을때마다 더욱 진일보하였고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10년 이상 걸릴 기술과 의학적 혁신을 초단기간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선 전례없던 생명과학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현재 2021년 1월 15일 날짜로 WHO 코로나 백신이 237개나 등록되었고 임상실험단계에 있다고 하니 초인류학적 혁신과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학회도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의미있는 국제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1st KOSCA Virtual Conference 2020: COVID-19,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7th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Challenges of Cybercrime as Opportunities, Prevention, Cooperation and Safety." 첫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미국 경찰사법제도의 개혁과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차별과 편견, 그에 대한 재미한인사회의 대응, 그리고 한미 공동 협업 등 함께 나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두번째 세미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이버 범죄와 방지 및 국제 공동 협력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Continued on p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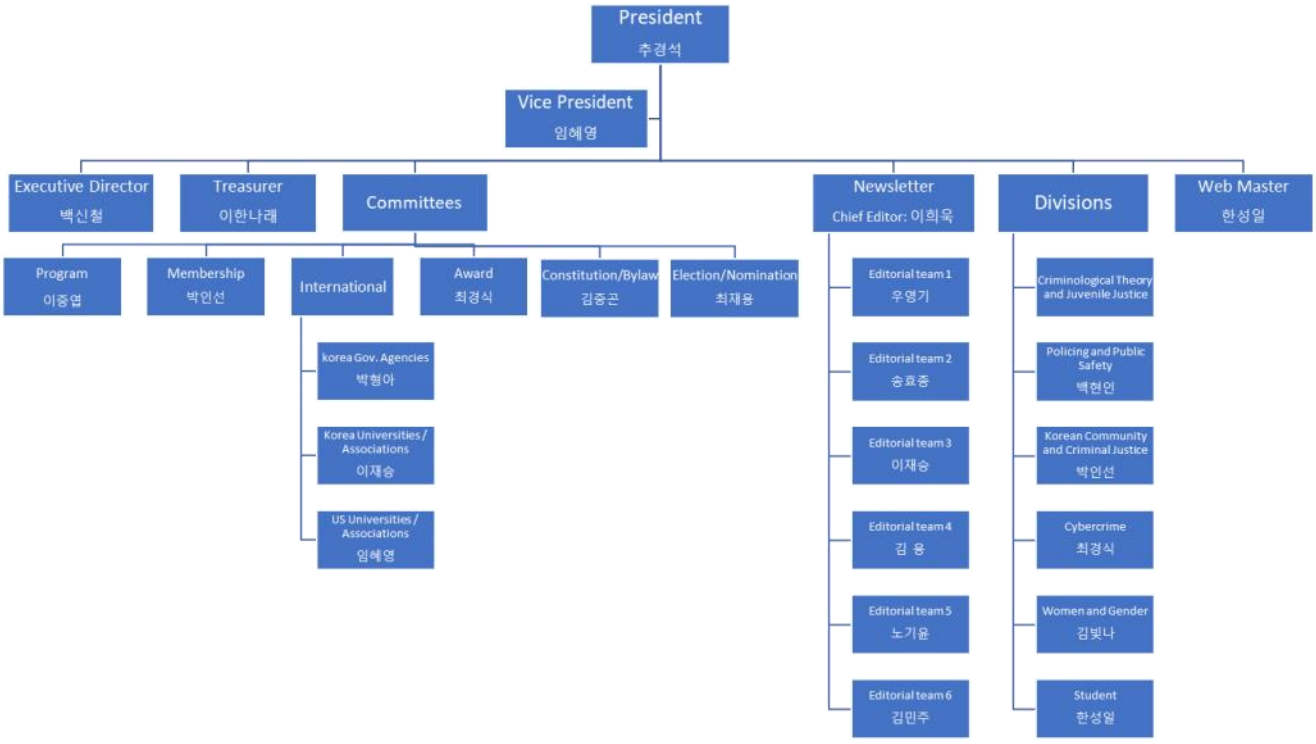
학회장 인사말

초기 미국범죄학회 역사를 찾아보니 1950년대 후반에 40명의 회원이 60명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현재 미국범죄학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학회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열성적인 여러 학회회원분들 덕분에 KOSCA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역사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회장 추경석 배상

KOSCA Organizational Chart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Cybercriminology

형사사법분야에서 사이버범죄심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문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KOSCA의 '사이버범죄' 학술분과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Division of Cybercrime 에서 Cybercriminology 로 변경하고, 이를 기폭제로 사이버범죄 학술분과위원장을 주축으로 많은 KOSCA 사이버범죄 회원분들께서 다양한 행사와 연구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Division of Cybercriminology는 지난 11월 13일 'COVID-19, Crime Trend, and Criminal Justice System'이라는 대주제하에 개최된 제1회 KOSCA Virtual Conference에서 'COVID-19 Outbreak and Landscape of Threats in Cyberspace'라는 소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신용 박사학생, 이한나래 교수, 이승은 교수는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트랜드와 기법 그리고 대응방안 등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었으며, 또한 최재용 교수/임혜영 교수는 토론자로서 관련 이슈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질의와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열띤 토론의 장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위의 발제와 토론에 관한 내용은 http://bit.ly/KOSCAConference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본 학술분과위원장 최경식 교수는 지난 1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한 10-10 프로젝트행사에 초청받아 'Cyber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의 관계에서 두 분야의 유기적이고 계획적인 네트워킹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다른 학술 교류활동으로 지난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 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 참여한 최경식 교수/이한나래 교수는 사이버범죄연구의 중요성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8JIwI_m3l9Q&t=3s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의 주요사업으로 Division of Cybercriminology에서는 2021년 6월 1-2일 양일간 '제2회 화이트해트 컨퍼런스(White Hat Conference)'를 보스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이트해트컨퍼런스(White Hat Conference)는 Department of Justice의 협찬아래 Boston University, KOSCA Division of Cybercriminology, ASC Division of Cybercrime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첫째날, "사이버범죄의 미래와 도전: 혁신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수사 실무자, 사이버보안 전문가, 학생 등 각국의 사이버범죄 수사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수사경연(The Cybercrime Investigation Competition)'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 둘째날에는 사이버수사경연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를 '모의재판(Mock Trial)'에서 증언하는 경연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범죄학 및 관련 전공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분야의 '우수논문 경연대회'도 준비중이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학생 본인 혹은 학생을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들은 최재용 교수 (jaeyoung.choi@angelo.edu)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KOSCA Division of Cybercriminology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신철 교수(KOSCA총무)와 이승은 교수는 최근 진행된 ASC Division of Cybercrime의 선거에서

(*Continued on page 5)*

학술분과 보고

Vice-Chair 그리고 Secretary-Treasurer에 각각 선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는 모든 KOSCA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사이버범죄의 연구,행사, 기타등등 다양한 논의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학술분과위원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 혹은 멤버십관리위원 이한나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11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KOSCA Virtual Conference 에서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during COVID-19 Pandemic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COVID-19 확산과 함께 불거진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 차별적 행동, 그리고 안전 위협요소를 살펴보고, 학자로서 또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발표 영상은 KOSCA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Division of Policing & Public Safety 와 함께 진행한 COVID-19 Outbreak, Police-Citizen Conflict, and Polic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세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시거나 저희 division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연락처: 박인선 교수 (ipark@uakron.edu)

Division of Police and Public Safety

Policing and Public Safety분과 세부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2020년 11월에 개최된 KOSCA Virtual Conference에 COVID-19 Outbreak, Police-Citizen Conflict, and Police Reform in the United States라는 주제로 세션을 열어 다양한 회원분들의 발표 및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Policing in COVID pandemic (한성일), Police-media relation (David Kim), Police-community relation: A historical aspect (이재승), 그리고 Police reform (임혜영) 의 주제에 관련하여 발표가 이뤄졌으며, 김문선 교수님께서 moderator로써 멋진 세션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conference를 계기삼아, 향후 한국 및 다양한 국가의 회원분들과의 학술적 교류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KOSCA Newsletter 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conference 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저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KOSCA회원분들중 Police and Public Safety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인 교수 (h0baek01@nmsu.edu)

Women & Gender Division (WGD)

Women & Gender Division (WGD)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토)에는 Writing Tips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 한인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출판을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Zoom Meeting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2월 5일 (토)에는 가을학기를

(Continued on page 6)

학술분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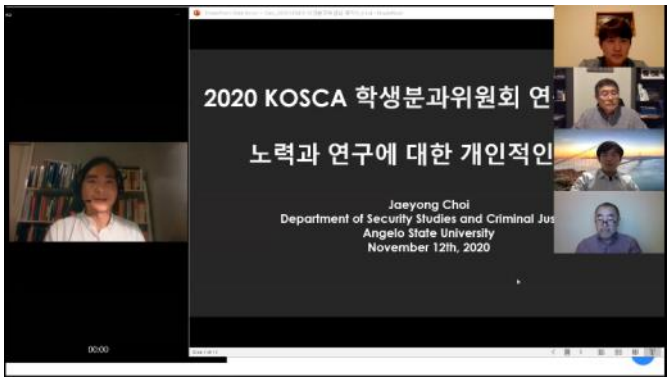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티칭, 리서치, 테뉴어, 프로모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Zoom Meeting을 가졌습니다. 2021년 첫 모임은, 2월 6일 (토)에 김춘례 교수님 (Saint Joseph's University)의 Systematic Review에 관한 강좌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WGD에 관심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bitna.kim@iup.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업무 및 행사보고: KOSCA 학생분과 정기 모임

KOSCA Student Division 다섯번째 정기모임

학생분과장: 한성일

University of Louisiana Lafayette 한성일 입니다. 이번 11권 1호에서는 2020년 11월 virtual로 진행된 학생분과 정기모임에 관하여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학생분과에서는 11월 12일 목요일Baylor University의 장성준 교수님 그리고 Angelo State University의 최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Research Publication 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된 행사임에도 많은 학생회원 및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Criminology 와 Criminal Justice 두 분야에서의 Research Publication에 대해 질 높은 강의를 해주셨으며 아래에 강의 내용을 강의 노트 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Criminology Research (Lectured by Dr. Jang)

1. Choosing Research Topics

연구 분야 및 주제 선정이야 말로 좋은 연구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지속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좋은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민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기 있고 시기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 우선 자기 자신의 관심분야와 연구적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시적 혹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주요 문제들을 바라보는지, 이론적 논지 혹은 실무적 관점을 지향하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너무 좁은 관심사 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다른 분야로의 적용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g., GST research in Prison studies).

(Continued on page 8)

2020 업무 및 행사보고: KOSCA 학생분과 정기 모임

2. A long-term plan & investment

연구분야 선정은 대학원 시절부터 고민해야 할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멘토와 어드바이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해보자면, 좋은 어드바이저란 지속적으로 배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운 혹은 까다로운 분들이 쉽고 편한 분들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업이야 말로 연구 주제 선정 및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일 것 입니다. 수업 discussion을 준비할 때 수업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며, 나만의 것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좋은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좋은 밑거름들이 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critical thinking 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업 및 연구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specifically thinking), 해당 내용들을 실제로 적어보는 과정들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적어보지 않는다면, 좋은 생각들이 구체화되거나 글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훌륭한 연구자들의 논문 및 글들을 꼼꼼하게 읽고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copy their writing structure, logic, and writing style).

3. Theoretical Contribution

좋은 연구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한가지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기여도 일 것 입니다. 이론을 검증하고 공부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main theory를 갖는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이론을 정하게 되면 해당 이론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론의 다양한 논지 뿐 아니라 최근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논지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발빠르게 학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검증을 거쳐온 이론일지라도 조명되지 않는 분야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비판적으로 살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identify missing parts). 따라서 해당 이론 혹은 분야에서의 선구적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와의 관련성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4. Good Data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의 해당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연구 자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대표성 있는 자료들은 연구의 한계 측면에서 장점을 갖게되고 연구결과의 적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대표성 있는 좋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모아진 보증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5. Methodological Strength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고급 방법론 보다는 내 연구 질문에 합당하고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Continued on page 9)

2020 업무 및 행사보고: KOSCA 학생분과 정기 모임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 시절에 다양한 방법론을 익히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것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다른 방법론을 익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6. Theoretical contribution > methodological sophistication

좋은 논문을 결정짓는 요인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결국 이론적 기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또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연구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통계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되, 항상 이론에 근거한 좋은 연구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7. Research Publication Process

- Developing a research idea: 관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연구 질문을 구체화 해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질문들을 주변 동료나 혹은 어드바이저에게 말해보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 질문을 발전시켜갑니다.

- Identifying suitable data

- Theoretical thinking <>analyzing/exploring data: 두가지 측면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한 측면이 우선적이거나 절대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Writing Paper

- Choosing a journal: 논문의 주제 및 방향성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journal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안에는 저널의 주제 및 수준 그리고 최근 경향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어드바이저 혹은 선배들에게 문의하는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 Proofread your paper carefully: 다 작성된 논문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의 기술적 완성도 또한 논문의 수준의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영어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 Pay a close attention to journal guidelines: 제출하고자 하는 journal의 논문제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이를 충분히 적용해야 합니다.

- Cooling-off period: 만약에 rejection 결정을 받더라도, reviewer 들의 comments 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것이 필요합니다.

- Rejection을 받은 페이퍼는 다른 journal에 제출하더라도 꼭 수정을 거친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합니다. Revision은 힘들기는 하지만 논문의 완성도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 측면에서 꼭 수행해야 할 과정입니다.

(Continued on page 10)

2020 업무 및 행사보고: KOSCA 학생분과 정기 모임

Criminal Justice Research (Lectured by Dr. Choi)

1. 나의 노력에 모든것이 달려있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이상적 환경과 조건들이 존재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들을 파악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질 높은 노력을 해야만 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꾸준히 쓴다.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써보지 않는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시키기 어렵습니다.

3. 우선 시작해 봐야한다.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 입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모든 책과 논문을 다 읽고 논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어느정도가 이해가 진행되면 나만의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필사를 한다.

좋은 논문을 찾아 꼼꼼히 읽고, 따라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글쓰기 구성, 스타일, 표현등을 읽혀 나갈 수 있습니다.

5. 3장부터 5장까지 쓴다.

논문에 대한 구성이 완성되었다면, 3장부터 쓰는것이 처음부터 논문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소 완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방법론부터 작성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연구의 전체적인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 투고와 rejection은 일상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으로,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reviewer 들의 comments를 바탕으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잡마켓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한다.

- 선명한 연구자로써의 정체성: 많은 연구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연구 분야를 찾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Continued on page 11)

2020 업무 및 행사보고: KOSCA 학생분과 정기 모임

- 잡마켓에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올해는 race and justice 혹은 cyber crime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의 적절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Criminal Justice Research: 사실 theory 연구와 criminal justice 연구를 확연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마켓에서의 모집 현황을 보면 많은 학교들이 criminal justice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theory 연구 뿐만 아니라 Criminal Justice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Data from Korea or U.S.A. :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 자료보다는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잡마켓에서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곳에 경주할 지 노력의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입니다.

KOSCA Virtual Conference (11/13/2020)

편집부: David Kim

On 11/13/2020, KOSCA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hosted a joint virtual conference. In the three hour conference, numerous participants from a variety of U.S. and Korean Institutions presen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policing and on cybercrime. Dr. Kyungseok Choo (President,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and Dr. Sally Simpson (President,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provided opening remarks for the conference.

Dr. Insup Han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iscussed the history of KIC and KOSCA. Dr. Han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volume 1 and volume 2. In addition, Dr. Han discussed how the conference will serve as a platform to discuss ideas to resolve citizen-police conflict due to the pandemic and the growing threat of cybercrime.

(Continued on page 13)

KOSCA Virtual Conference

Division of Policing & Public Safety and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 Criminal Justice

The division of Policing & Public Safety and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 Criminal Justice presented on *COVID-19 Outbreak, Police-Citizen Conflict, and Polic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Dr. Moonsun Kim served as the moderator for the presentations. Six (6) presenters, Dr. Insun Park, Dr. Sungil Han, Professor David Kim, Dr. Jaeseung Lee, Dr. Hyeyoung Lim, and Dr. Junwhi Park discussed the various impacts of COVID-19.

Dr. Insun Park presented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creased racism and aggression against Asians in the United States. Dr. Park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of criminological research on Asian Americans in the U.S.

Dr. Sungil Han presented the impact of COVID-19 on police officers. Due to the pandemic, increased responsibility and challenges arose for police officers. Dr. Han presented several issues on how COVID-19 impacted the roles and priority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improve the current state of policing.

Professor David Kim presented the impact of media on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and how media impacts citizens' perception. Prior research and statistics were discussed in the presentation. Professor Kim provid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he media's impact on citizens and the effect of the media's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Continued on page 14)

KOSCA Virtual Conference

Dr. Jaeseung Lee presented o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COP).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P was discussed such as the philosophy, tenets, and the integration of COP into policing. Dr. Lee provided information on ongoing research on COP and current issues of COP in contemporary society.

Dr. Hyeyong Lim presented recent police reform movements. Dr. Lim discussed specific programs/policies such as Campaign Zero, the citizen review board, and the use of force continuum. Issues with the current program/policy and how to improve the current state of training were discussed. Recommendations/ suggestions were postulated by Dr.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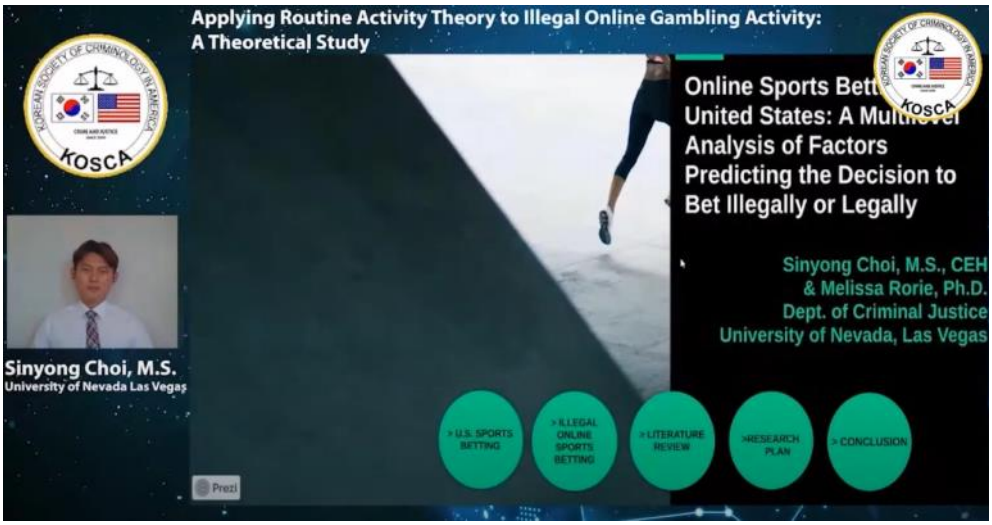
Division of Cybercrime

The Division of Cybercrime discussed the *COVID-19 Outbreak and Landscape of Threats in Cyberspace*. This was moderated by Dr. Sinchul Back. There were a total of three presenters, Sinyong Choi, Dr. Hannarae Lee, and Dr. Claire Seungeun. Each of the presenters provided information on on-going research that they were currently working on.

(Continued on page 15)

KOSCA Virtual Conference

Sinyong Choi presented his on-going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Routine Activities Theory to illegal online gambling. The influx of online gambling due to the pandemic was discussed. Background and prior research were discussed as well as ongoing research on applying Routine Activities Theory to illegal sports online gamb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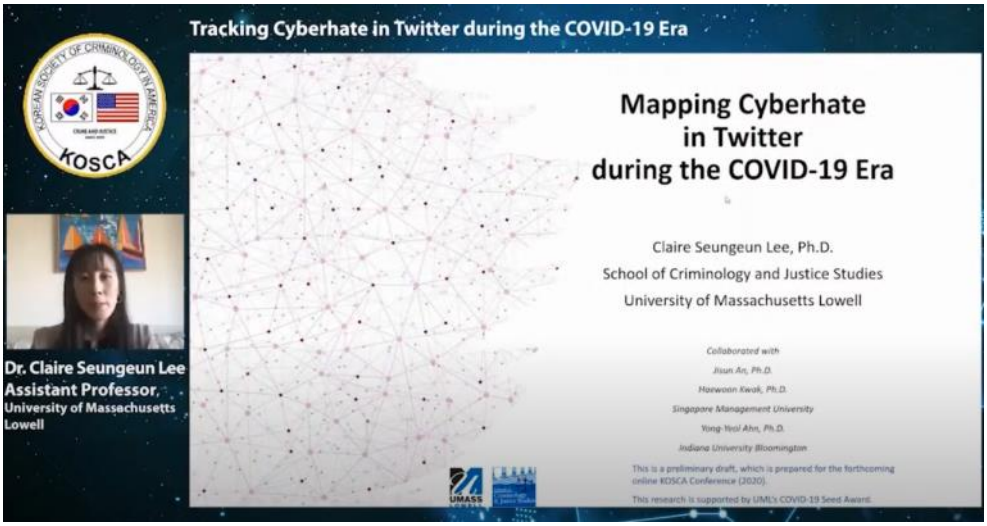


Dr. Hannarae Lee, presented on ongoing research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itcoin, ransomware, and terrorist activities: criminal opportunity assessment via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etical framework. Dr. Lee presented how the formulation for the study occurred, how Cyber Routine Activities Theory would be used, and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ontinued on page 16)

KOSCA Virtual Conference

Dr. Claire Seungeun Lee presented on Mapping cyberhate on twitter during the covid-19 era. Issues with online racism/hate speech targeting Asian and Asian Americans were discussed. Background, research question, data & methodology, and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study were discussed.



Recipients of Junior Faculty Research and Student Paper Awards

Two members of KOSCA received the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 and the Student Paper Award. Dr. Jaeyong Choi (Angelo State University) was the recipient of the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 The acceptance speech can be viewed in the Virtual Conference video link posted in the newsletter. In addition,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Dr. Jaeyong Choi on page 17.

Dr. Sungil Han was the recipient of the Student Paper Award (University of Louisiana Lafayette). The acceptance speech can be viewed in the virtual conference video link posted in the newsletter. In addition,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Dr. Sungil Han on page 18 & 19.

Overall, the virtual conference was very successful. The full version of the virtual conference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5jCW4vn_pQ

(Continued on page 17)

2020 Junior Faculty Research 수상자 인터뷰 최재용

2020 재미한인범죄학회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 수상자 인터뷰

편집부: 이재승

Q.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는 미래세대의 범죄학자들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는 저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저는 형사정책과 관련한 주제들을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같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에 집중하여 연구해왔습니다. 이 연구들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마련한다고 믿습니다.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격려로 이해하고 더 꾸준하게 이 분야의 이해를 넓히는 데 힘 쏟겠습니다.

Q.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날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 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연구와 이해가 다른 형사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 등에 대한 공부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동료교수들에게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이외 다른 삶의 영역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삶에서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지치지 않도록 삶의 쉼표가 될 수 있는 활동과 관계 또는 휴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잘 쉬는 것 역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상 소감의 소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Continued on page 18)

2020 학생논문상수자 인터뷰 한성일

2020 재미한인범죄학회 학생논문상 수상자 인터뷰

편집부: 이재승

Q.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KOSCA Student Paper Award를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양질의 연구를 하고 계심에도, 제가 운좋게 수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던 마음과 자세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 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 번에 수상한 논문은 제 졸업논문의 한 부분으로 Immigrant Juveniles의 범죄 양상이 Non-Immigrant-Juveniles과 어떻게 다른지를 Rational Choice 이론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저는 졸업논문을 위해 Immigration and Crime 이라는 큰 주제 아래, 총 세개의 독립적 페이퍼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주제에 이어, 두번째로 Immigrant antisocial attitudes를 non-immigrant population과 종교성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immigration concentrated neighborhoods에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Race 측면을 고려하여 검증하였습니다.

Q. 그 밖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Immigrant/ethnicity and policing 과 routine activity theory 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Crime generating facilities와 Crime vulnerable areas의 관계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으로 유명한 두 도시에서 주요한 관광지를 기점으로 숙박업소 혹은 음식점과 같은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거리적 측면에서 검증해 보고, 이에 대비해 범죄 예방 활동의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tinued page 19)

2020 학생논문상수자 인터뷰

Q.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동료학생들에게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저도 아직 많은 수련이 필요한 새내기 연구자로써, 좋은 연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과 주위를 훌륭한 연구자들을 보고 공부해 본 결과,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좋은 연구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연구 질문을 위해서는 해당 분양의 질 높은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여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왜 내 연구가 중요한가에 대한 논리적 질문과 대답이 좋은 연구 질문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연구 방법론적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방범들을 수강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e.g., SEM, multi-level analysis, time-series analysis, and Geo Spatial Analysis). 만약 대학원 과정에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깊이있는 통찰과,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한다면, 이를 통해 다양하고 시사점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Doctoral Comprehensive Examination Tips

박사종합시험 (Doctoral Comprehensive Examination)을 위한 조언과 팁

편집부: 노기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박사종합시험 (doctoral comprehensive examination) 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흔히 "comps" 라고 불리는 종합시험과 관련된 작은 정보와 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박사종합시험은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전공 필수 과목 (required coursework) 들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며, 박사학위논문 (dissertation)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치뤄집니다. 전공 분야와 학교마다 다른 방법과 형식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프로그램에서는 종합시험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프로그램에서 시험의 명칭과 제도를 수정하기도 하였고, 따라서 시험을 보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필기시험을 학교에서 (또는 take-home exams) 8시간씩 3일을 보고 구술시험까지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몇몇 학교들은 1-3 개정도의 publishable paper로 과거의 전통적인 종합시험을 대체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찬반논란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장단점을 이번호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종합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 마지막 단계인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허락을 하고 (ABD: All But Dissertation),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보통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해당 규정에 관한 부분도 프로그램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며, 두번 째 시도에서도 불합격이 된다면 종합시험 위원회 (committee) 로부터 불합격의 통보를 레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학위 프로그램을 그만둘 것을 통보받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박사과정 위원회 및 코디네이터와 미팅을 갖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동반하는 박사종합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정보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에서 발간하는 공식 뉴스레터 The Criminologist 41권 5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참조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 시험준비를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준비란 본격적인 종합시험 대비를 위한 준비 뿐만 아니라, coursework 을 하는 중에도 주제와 저자별로 노트 정리를 미리 해놓고 별도의 보관함에 정리를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종합시험 대비를 위한 reading lists 와 기출문제들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치합니다. 이러한 material 을 미리 구비하여 시험 형식과 내용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둘째, 핵심 과목들은 다시 audit 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Coursework 중에 많은 학생들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과목 내용에만 집중하고 참고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통과한 과목

(*Continued on page 21)*

Doctoral Comprehensive Examination Tips

교수님들은 (해당 과목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informal 한) audit 을 허락해주십니다. 또한 수업중에는 종합시험과 관련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인지적 재구성 (cognitive reconstructing) 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시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비관적인 시각을 낙관적인 시각으로 전환해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읽어야 할 것들과 기억할 정보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전공의 참고문헌에 정통하고 여러 경험적 연구의 더 나은 소비자가 됨으로써 나의 커리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전환해보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종합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연구와 이론에 대한 참고문헌들은 차후에 교수가 되어 연구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 인생에 있어 마지막으로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신에게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고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종합시험을 위한 공부" 라는 스케줄 보다는 "self-control 참고문헌 복습하기" 와 같은 구체적인 스케줄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스케줄은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주고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계획에 최대한 가까이하되 유동적이어야 함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같이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종합시험이 온전히 경쟁적이고 고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시험 준비로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터디 그룹에 너무 의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과는 별도로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시험 출제위원 (committee members) 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님들은 시험과 관련해 많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 출제자들을 만난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서의 경험상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출제위원들과 시험에 관련된 대화를 가지면서 시험에서 피해야 하는 함정들, 만족스러운 답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등등, 그리고 전반적인 시험 개요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 교수님들께 첨삭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passable" 한 답변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 개인 마다의 재량이지만 꼭 시도를 해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일곱째, 모의고사를 치뤄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자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둔감화 (desensitization) 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한 노트들을 다 치우고, 휴대폰을 끄고,

(*Continued on page 22)*

Doctoral Comprehensive Examination Tips

타이머를 설정하고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모의시험을 치뤄보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실제 시험을 치루게 될 장소에 가서 빛, 온도, 주위 소음과 같은 환경에 적응을 할 기회도 가져보는게 좋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것들을 포용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세요. 주위에는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시험 준비 잘되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박사과정 학생들이라면 자주 듣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질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본인을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상황들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홉째, 시험 공부 외에 다른 해야할 일도 게을리 하지 마세요. 중도 (moderation)가 핵심입니다. 종합시험을 치를 때가 된 박사과정 학생들이라면 연구 프로젝트, 박사학위 논문 제안서 초안, 학회 발표, 그리고 강의와 같은 다른 일에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운동/명상,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만 마실 수 없습니다. 가끔은 카라멜 마끼아또도 마셔야 하는 법이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제한적이지만 시간을 보냄으로써 사회 활동들을 계속 유지하며 멘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부분도 박사종합시험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프로그램 밖의 외부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지어 페이퍼, 논문, 책들이 널려있는 거실 공간을 직접 본 가족이나 배우자도 나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넌 시험에 강하잖아!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넌 잘할거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진정으로 대하는 것임을 잊지마세요. 시험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나의 삶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요하고 마땅한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란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열한번째, 첫번째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수년간 열심히 준비해왔고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시험 공부에 매달려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준은 높고 부족한 점들은 가차없이 혹평을 받습니다. 가족들, 교수님들이 실망할까봐 걱정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프로그램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과 동등하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좌절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두 번의 시도 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그 이상의 시도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시험은 다시 치면 됩니다.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축하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말한마디 해주세요. 하지만 시

(*Continued on page 23)*

험을 통과했을 때 너무 과한 축하를 함으로써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종합시험이 끝났다고 박사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박사학위 논문 단계와 잡 마켓에서의 더 큰 어려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진전이라고 할지라도 축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을 졸업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여정을 위해 짧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박사종합시험에 대한 조언과 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종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학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반대로 종합시험을 실패하였다고 나중에 좋은연구자가 되지 않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과 고난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겸손해지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의 12개의 조언은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References

Woodard, T., & Craig, M. (2006). Tackling Comprehensive Exam Anxieties: The Doctoral Student's Guide, *The Criminologist, 41(5), 37-38.*

Clark, D. A. (2014). Cognitive restricting. In S. A. Hoffman (Ed.), *The Wiley handbook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art I, pp. 1-22).*

Cullen, F. T., & Vose, B. (2014). How to be a successful graduate student.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0(4), 362-377.*

코로나와 대학, 온라인 강의

편집부: 송효종

KOSC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는 전 세계적 COVID-19 의 확산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대학에서 역시 거의 모든 교육 및 학술 활동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 낸 전례 없는 상황에 더해, 미국과는 또 다른 한국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면을 빌어,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코로나 위기 적응 과정과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학기, 2020년 1학기는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초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강을 2주 연기했고, 3월 중순이 되서야 겨우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서버 과부하, 해킹 위협, 화상 수업 제작 문제 등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당면 과제가 되었고, 또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웹캠, 마이크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러한 장비들의 가격 역시 한동안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포맷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교수들은 화상 수업의 제작과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고, 학생들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학교 시설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금 감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관리 전담 팀을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개강 첫 주에는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혹 전화 연결이 되어도 도움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온라인 포맷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주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실습 관련 수업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험 실시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혼란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대면 시험과 온라인 시험이 병행 실시되었는데 대면 시험에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규모 강의실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시험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연장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일부 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함에 따라, 2주 시험 기간 동안의 실시간 강의들은 따로 녹화해서 제공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면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치러 학교에 온 학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건물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두 학기를 보내고, 이제는 교직원, 교수, 학생들 모두 어느 정도 새로운 대학의 모습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여러 온라인 수업 관련 워크샵들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강의들이 제안되고 공유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역시 서로 온라인 수업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능 및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이전보다 더 자주 주위에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대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첫 학기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러한 준비들 덕

(Continued on page 25)

분에 올해는 아마도 작년에 겪었던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주로 학습자료 제공과 온라인 토론만을 진행하는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해왔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허용되지 않고, 주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 녹화 강의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주로 휴강에 대한 보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1학기 학부 수업은 동영상 녹화 강의로, 2학기 학부 수업은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녹화 강의의 경우, 강의를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잔여 시간을 좀 더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녹화강의는 실시간 의견 교환이나 질문 등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수강하는 도중 집중력도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며, 학습 루틴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반면 실시간 강의는 교수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녹화 강의 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대면수업 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방해받는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강의의 낯설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특징에 기인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제약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적은 수강인원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서 진행했었는데, 확실히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대면 수업에서 더 활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간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나아가 학과 혹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중요한 멤버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일종의 연대감과 소속감이 들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교수자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면 강의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자체가 교수와 학습자간, 그리고 학습자들간에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겠다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물리적 조건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노력들 중 하나로, 교수 및 강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먼저 묻고,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수들의 반응을 통해 더욱 동기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문의 이메일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던지, 과제/시험에 대해 즉각적이면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 코로나 상황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주는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앞서

(Continued on page 26)

이야기했듯이, 중간고사가 2주로 늘어나게 되면서, 타 과목 시험으로 시험 기간에 실시간 강의를 듣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험기간 동안의 실시간 강의들에 한해 녹화 강의를 제공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추후에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은 학생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항상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는지 매번 물었었는데, 이때 몇몇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쉽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바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내 신문에도 사례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노력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 경우, Kahoot! 과 같은 실시간 퀴즈 애플리케이션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강의 중간 지루할 수 있는 시간대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 5개 내외의 사지선다 퀴즈 타임을 가지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퀴즈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의평가에서 이 실시간 퀴즈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퀴즈 앱에서는 고득점 순으로 포디움도 보여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포디움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했다는 코멘트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디움에 오른 학생들에게 엑스트라 크레딧을 제공해도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시간 강의의 경우, 렉쳐 PPT 슬라이드 보여주며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때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이용하면, 슬라이드 위에 밑줄을 긋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이러한 기능들이 전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심원 이론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달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우수한 기술적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자신의 수업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강요된 변화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또 내 강의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비록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게 될 강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COVID-19 이 종식될 때까지 KOSCA 학회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Sally Simpson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장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Sally Simpson

Dr. Sally Simpson

Ph.D. Soci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85)

Current/Past Positions:

2002-Present: Professo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1993-2001: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1989-1993: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1986-1989: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Oregon

1985-1986: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Smith College

Research Interests: Corporate Crime, Gender and Crime, Measurement of White Collar Crime, Testing Criminological Theory

Sally S. Simpson is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Business Ethics, Regulation, & Crime (C-BERC)**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rporate crime, criminological theory, and the intersection between gender, race, class, and crime.

Dr. Simpson won the 2018 Edwin H. Sutherland Award from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S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nd, in 2008, was named Distinguished Scholar by the Division on Women and Crim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r. Simpson will serve as the 2019/2020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nd is the past-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Doctoral Program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She is former Chair of the Crime, Law, and Deviance Section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d past President of the White-Collar Crime Research Consortium.

(Continued on page 28)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Sally Simpson

Recipient of the Herbert Bloch Award from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in 2010 Dr. Simpson was named Woman of the Year by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Women's Issue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Dr. Simpson won the Gilbert Ge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from the National White-Collar Crime Center and the White-Collar Crime Research Consortium in 2013.

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Throughout my career, a number of people have influenced my work—indirectly (by peaking my research interests in one way or another or affecting the way I think about problems) and directly (via working together on projects). I've been lucky to have been exposed to creative, thoughtful, and well-regarded researchers starting early in my career (James Short, Anthony Harris, Rob Faulkner, Roland Chilton), who have been mentors (Gerald Garrett, Imogene Moyer, Rosabeth Moss Kanter, Amitai Etzioni). Later in my career, my colleagu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our graduate students have been important influences. In my subfields of interest, "corporate crime" and "gender, crime, and justice," there are too many people to name individually but a short list would include Gil Geis, Diane Vaughan, Peter Yeager, John Braithwaite, and Mike Benson; Kathy Daly, Meda Chesney-Lind, Patricia Hill Collins, Candace Kruttschnitt, Rosemary Gartner, Julie Horney, Ngaire Naffine. I apologize to the many others who I have failed to name—I hope you know who you are!

How are you able to publish and receive grants?

It is a challenge to do both, but I (unfortunately) selected fields of expertise where data were sparse. For me to research what I wanted to study, it was important to collect original data. Lucky for me, my interests in collecting original data happened to correspond to funding opportunities and thus, I was able to secure funding for many of my research projects. Importantly, I learned to leverage the skill sets of others when applying for grants—often collaborating on proposals with scholars in other disciplines. I also am part of a faculty that values publication quality over quantity so publishing less but leaving a mark is more important than publishing a lot of articles that no one reads.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Absolutely. It is common for me to work all day to produce a page or two of written work and then tear it up and start again the next day because my writing did not flow or make sense because of writer's block. Sometimes it is better to recognize writer's block and shift your work to something else. I have found that, for me, struggling through it doesn't work. It is better to start again after a day's break.

(Continued on page 29)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Sally Simpson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Projects of my own? I probably am working on 3-4 at any given time. This would include papers and submissions in progress coupled with grant responsibilities/obligations. Adding in student MA and Ph.D. theses that I'm chairing would add another 4 or so.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I am definitely a morning person. I get up between 5 and 6 am, have my coffee, catch up on the news, and start my day around 8-8:30. I'm pretty disciplined in that I stay at it until noon, then after lunch work another 2-3 hours. With this kind of schedule, I burn out by mid-afternoon at which time I work on other kinds of things that require less deep thinking or writing. I do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breaks. I often do not work on one day during the weekend and I think exercise absolutely is critical to good mental, physical, and intellectual health.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This varies greatly (see answer to writer's block!). Some days I can write a solid 5-6 pages. On other days, barely 1. However, I am much better working on a draft—making edits, adding paragraphs than I am starting with and staring at a blank page. I often tell my students that the first 2-3 pages of a new paper are the hardest.

Are you a generalist?

As a trained sociologist, I tend to think big picture. However, given that I study gender (coupled with race and class) and corporate crime, I see merit in narrowing the scope of study.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many group and offense types have been ignored when it comes to theory development and empirical observations/knowledge building. I think it is possible (and important) to focus narrowly on these subjects and then build back to broader and more general theoretical principles.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for you?

Getting a couple of articles out for review and editing those already subjected to the review process.

(Continued on page 30)

Hitting the marks on grant progress—typically progress reports are required twice a year. So, have we done what we said we would do during those reporting periods? Working with students (and former students) to get out publications. Mike Benson and I have a book on white-collar crime that we revise every couple of this. Next year, we start work on our 4th edition (adding two new co-authors, Jay Kennedy and Melissa Rorie!). In addition to writing, I tend to go to a conference or two with a couple of presentations (often with graduate students) and attend a workshop or two to share research papers and learn what others are doing in shared areas of interest. In the past 12 years, I have also had a lot of administrative and service work—both on campus and 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What would you advis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No, I do not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However, setting productivity goals is more important for junior faculty and associate professors. One will not get tenure or promoted without meeting department criteria. I strongly encourag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o focus on the actual metrics in place at institutions where they want to get a job or, if employed, tenured. A loaded CV coming out of graduate school tends to only benefit you if the work is well-placed, high quality, and shows you to be an independent scholar (i.e., you are driving the agenda, not someone else). So, the emphasis should be on high quality and well-placed publications and not quantity.

학교소개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UMASS Lowell)

학교소개: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이승은 (Claire Seungeun Lee)

안녕하세요,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 회원여러분! 매사추세츠대학 로웰캠퍼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이하 UMass Lowell)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인 이승은입니다. 먼저 KOSCA 뉴스레터에 미국 소재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CJ) 박사과정 프로그램 소개코너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UMass Lowell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UMass Lowell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편집위원회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Mass Lowell은 University of Massachusetts system 에 속하며, 매사추세츠주 로웰시에 소재해 있는 대학으로,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교수진과 학생들은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보스턴에서 약 4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이공계 중심의 North Campus와 인문사회계 중심의 South Campu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chool of Criminology and Justice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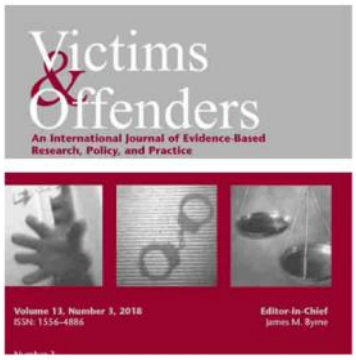
1977년에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름인 School of Criminology and Justice Studies (이하 SCJS)는 2012년에 출범되었습니다. SCJS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이 있으며, 인문사회예술대 (College of Fine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내에서 학부생이 가장 많은 학과로,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부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석사과정은 범죄학(criminal justice)과 안보학(security studies) 과정으로, 약 400명이 석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이 외에도, 5개의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명의 박사과정생이 재학중이며, 범죄학(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과 테러리즘 등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SCJS는 UMass Lowell의 법학(Legal Studies)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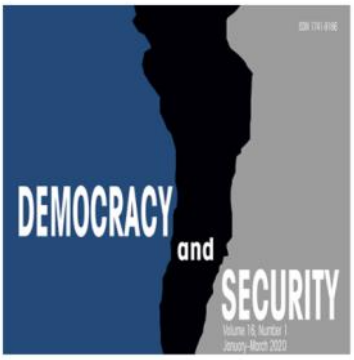
(Continued on page 32)

학교소개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UMASS Lowell)

저희 SCJS는 25명의 전임교원 (21명의 Tenure Track & Tenured 교수들, 4명의 교육중점트랙)과 3명의 방문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victimology, policing, corrections, biosocial criminology, organized crime, terrorism, violence, the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sex offenders, criminal justice technology, cybercrime, global justice issue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양적, 질적, 혼합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제간 관점에서 범죄학 및 테러리즘을 연구합니다. 수년 간NIJ, Department of Defense (DoD) 등으로부터 다양한 연구비를 수주해왔습니다.

SCJS는 Victims and Offenders, Democracy and Security, Perspectives on Terrorism 등의 저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Community Corrections Initiative 및 Center for Terrorism and Security Studies 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입학

매년 약 3-5명 정도의 박사과정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생들은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며, 연방정부 등의 관련 경력이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입학하고 있으며, 외국학생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원서류는 학부 3.75 이상의 GPA (석사, 3.66), GRE 점수, TOEFL, 추천서 3부, 라이팅샘플, Personal statement 등이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까지 지원을 받으며,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도 진행됩니다.

펀딩

선발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장학금을 받으며, TA나 GA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SCJS 및 타 학과 교수진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교내외 펀딩의 기회가 있습니다.

Coursework

박사과정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Required courses 42학점, Elective courses 6학점, Dissertation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스웍 외에 preliminary exam (PE)와 the comprehensive exam (CE)를 합격해야 합니다. 이를 완료하면 Dissertation 단계로 넘어가며 prospectus defense 와 dissertation defense의 단계를 거쳐야 박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33)

학교소개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UMASS Lowell)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며, 학생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Mass Lowell의School of Criminology and Justice Studies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내용이나 그 외의 내용이 더욱더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은 (Claire Seungeun Lee)
Claire_Lee@uml.edu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회원 소식

Employment

Claire Seungeun Lee 2020년 UMASS-Lowell, Assistant Professor

Research

Grant Research

노명훈 교수 (Myunghoon Roh, Ph.D.), Texas A&M University-San Antonio

(CO-PI/ ₩30,000,000원: Mar. 2020 – Dec. 2020): 대한민국 대검찰청.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증권・기업범죄 분석 및 예측'.

Invited Talks/Presentation

최경식 교수 (Kyung-Shick Choi, Ph.D.), Boston University

2020년 12월에 열린 제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국제포럼에서 프레젠터로 참여하셨습니다. 한국형사연구소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행 범죄 및 정의 동향과 관련하여 매년 한국형사연구소 (KIC)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국내외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포럼에서는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 사이버범죄 개요, 사이버보안, 사이버경제범죄, 사이버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슈들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 함께 논의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발표와 대응을 위한 사법기관간 협력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dvertisement: SCJA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2021 Annual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Hilton Daytona Beach Oceanfront Resort
on
September 8-11, 2021

"Enhancing Criminal Justice During a Global Pandemic"

Bryan Lee Miller, President
Clemson University
Cathy Marcum, Program Chair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We're headed to Daytona Beach, Florida in 2021. Join us at the Hilton Daytona Beach Oceanfront Resort for a great conference!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disruption across the world, withi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in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stellar panels and fellowship that have made Southern conference the top regional criminology conference, we've planned a special emphasis on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pandemic and working to enhance criminal justice practices and education through these difficult times. Thematic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roundtables will largely focus on this theme. Hilton Daytona Beach Resort is conveniently located at the edge of the most famous beach in the world. You will have access to some of Daytona's best attractions, from the Daytona Beach Boardwalk and Pier to the shops and restaurants that line Ocean Walk Village. Sports enthusiasts can enjoy the local golf courses and Daytona Speedway. The deadline for proposals is June 15, 2021.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Cathy Marcum (marcumcm@appstate.edu).

Advertisement: Boston University CIC

ONLINE ON CAMPUS

Cybercrime Investigation & Cybersecurity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REQUIREMENTS
GRADUATE CERTIFICATE IN CYBERCRIME INVESTIGATION & CYBERSECURITY
(four courses/16 credits)

MET CJ 610	Cybercrime
MET CS 684	IT Security Policies and Procedures
-OR MET CS 694	Mobile Forensics and Security
MET CS 693	Digital Forensics and Investigations
MET CJ 710	Applied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LEARN MORE

If you have questions, or you're look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admission and tuition, please contact us or visit our website.

Admin	Director
Phone : 617-353-9185	Dr. Kyung-Shick Choi
Email : APSSAdmissions@bu.edu	Phone : 617-358-2807
Visit bu.edu/met	Email : kuung@bu.edu

Why Choose BU's Graduate Certificate in Cybercrime Investigation & Cybersecurity?

- Four-course certificate program comprises courses shared by the Master of Science in Criminal Justice program, **ranked #2 among the Best Online Master's in Criminal Justice Programs** (U.S. News & World Report). The program has been in the top 4 since 2015.
- Students learn from leading criminal justice faculty with extensive field experience and scholarship i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 Students are able to network with a global community of criminal justice and cybersecurity professionals.

BOSTON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Metropolitan College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Project: "Student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Educational Opportunities Program"

With the assistan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federal funding, the CIC program strives to expand and perfect the methods identified as the best practices utilized by law enforcement at all levels. The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n effective training as well as uniform training guidelines within the field of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This federally funded project not only helps to prepare the future professionals within the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field, but this program also helps to reflect and meet the current demands presented in today's society and the future of this world.

BEST ONLINE PROGRAMS U.S.News VETERANS GRAD CRIMINAL JUSTICE 2021

BEST ONLINE PROGRAMS U.S.News GRAD CRIMINAL JUSTICE 2021

BEST ONLINE PROGRAMS U.S.News GRAD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2021

A Top-Ranked Program

2021 U.S. News & World Reportrankings:

#2, Online Graduate Criminal Justice Programs (for MS in Criminal Justice)

#4, Online Graduate Criminal Justice Programs for Veterans (for MS in Criminal Justice)

#8, Online Graduate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s (for MS in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Th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s at Metropolitan College are certified by the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Systems (CNSS).

Boston University is also recognized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s a Center of Academic Exceelence in Cyber Defense and Research (CAE-R).

Advertisement: White Hat Conference

2021 White Hat Conference

BU CIC will be hosting the 2021 White Hat Conference in Boston suppor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s (DOJ)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 This White Hat conference will be collaborated with the project, **"Student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Educational Opportunities Program"** led by Boston University, DOJ, and BJA. The White Hat Conference program will be a foundational effort that seeks to enhance the current capacities of higher education in an effort to better serve students in the areas of cybersecurity,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leading to improved cybercrime investigations and successful prosecutions.

Furthermore, this conference will help to provide students with internship opportunities within the areas of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through the assistance of a job fair. This will help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approach which can further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ships/co-op programs.

BU CIC White Hat conference, consisting of the **Cybercrime Investigation Competition and Student Research Paper Awards**, is a part of this larger grant project.

Cybercrime Investigation Competition

The Cybercrime Investigation Competition 2021 is going virtual!

With much consideration to the pandemic issue, the 2021 competition will be held virtually as a team competition **(3 Members per Team).** For this competition, college student/practitioner team will engage in cybercrime investigation-focused activities centered on digital forensics. The goal of the competition is to develop an effective cybercrime investigation training, test the best practices reflecting the needs of all levels of law enforcement, and establish a training guideline in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Eligibility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wards

- **Winner Team: $1,000 prize, plus BU CIC Scholarship (TBA)**

Student Paper Competition

The CIC Paper Awards will be presented to the top three teams (students and a faculty coach) who have authored original, unpublished papers for presentations at the 2021 White Hat Conference.

Awards

- **First Place Winner: $500 prize, plus one student presenter will receive waived registration to present the research findings.**
- **Second Place Winner: $300 prize, plus one student presenter will receive waived registration to present the research findings.**
- **Third Place Winner: $200 prize, plus one student presenter will receive waived registration to present the research findings.**
- The winning papers will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crime Investigation & Cybersecurity's*** **(IJCIC) special issue in 2021.** Winners have to present their findings at the 2021White-Hat Conference to be awarded.

IJCIC welcomes research submissions from criminologists, social scientists, computer scientists, cybersecurity practitioners, members of police agencies, policy-makers, and academic researchers. Inter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on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topics are also welcome for submission.

Guest Editor: Dr. Jaeyong Choi at jaeyong.choi@angelo.edu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CIC UTICA COLLEGE BJA

공지사항 [1]: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1)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ipark@uakron.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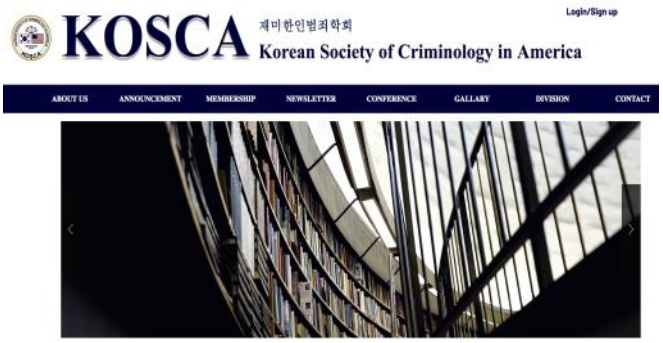
2) 학회비 (연회비) 납부 (Payable to Hannarae Lee)

보내실 곳: Dr. Hannarae Lee h2lee@bridgew.edu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Maxwell Library Room 312E
10 Shaw Road
Bridgewater, MA, 02325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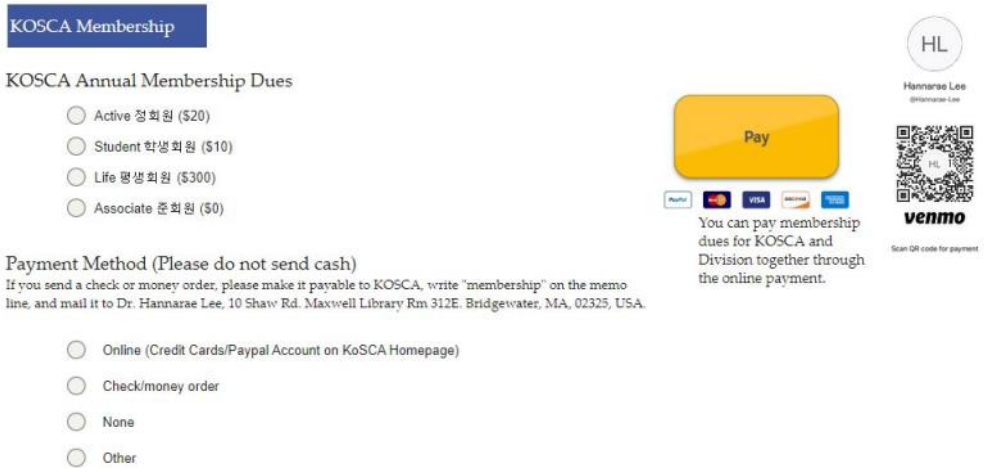
공지사항 [2]: 학회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학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이용 안내



학회홈페이지가 새단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정의 비용과 함께 의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 감소를 위해 새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새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두 가지 기능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첫째, 멤버쉽 가입과 회비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될 수 있도록 PayPal Payment option을 연동시켰습니다.



둘째, 새 홈페이지에서는 각 학술분과별 개별 페이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탑메뉴에 있는 Division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버범죄분과에서 개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sca.org/division). 개별 페이지를 개설하시고 싶으면 분과장님께서는 웹매스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contact).

셋째, 학회기간동안 방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Room Sharing 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forum/room-sharing

멤버쉽위원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술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cebook 홈피에서 KOSCA 혹은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Facebook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330263550687261/

공지사항 [3]: Newsletter 회원투고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이희욱 교수 (E-mail: heeuklee@weber.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 교수 (Email: ipark@uakron.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11, No. 1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870 Broadway Street
Lowell, MA 01854

ISSN 2169-9924 (Print)
ISSN 2169-9040 (Online)

President: Kyung-Seok Choo (추경석)
E-mail: kychoo@utica.edu

Chief Editor: Heeuk Dennis Lee (이희욱)
E-mail: heeuklee@weber.edu
Managing Editor: **David Yong Kim (김용)**
Email**:** dyk1@iu.edu

Editorial Team: Youngki Woo (우영기: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Hyojong Song (송효종: Korea University)
Jaeseung Lee (이재승: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Keeyoon Noh (노기윤: Pittsburg State University)
Minju Kim (김민주: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